

特殊圖書館大會會議錄 (拔萃)

日時：1964年 9月23日~24日 (2日間)

場所：中央公報館

一. 開會式 (9月23日 午前 10時)

司會：李結珪(國會圖書館圖書課長)：現在 46個 圖書館에서 105名이 參席하였음을 報告하고 第三回全國特殊圖書館大會 開會를 宣言

1. 國民倭禮
2. 開會辭：閔泳珪(韓國圖書館協會會長)
(別紙掲載)

祝辭：尹天柱 文教部長官(代談李結熙 文藝體育局長)：(別紙掲載)

記念講演：李孝祥 (國會議長)：第三回全國特殊圖書館大會를 마치 하여 먼저 우리나라 圖書館事業의 發展을 爲하여 盡力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勞苦를 致賀하는 바이며 이자리에 參席할수 있는 機會를 주신데 對해 感謝하게 生覺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보람있는 자리를 빌려서 平素 圖書館에 關하여 生覺해온바를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圖書館을 知識의 寶庫라고도 하며 또는 知識의 傳達機關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過去의 知識이 圖書館으로 集積되고 또한 圖書館을 通하여 우리는 知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圖書館은 그 知識傳達機能을 通하여 文化의 發展에 功獻하게 되는 것이며 이點에서 우리는 圖書館을 文化機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圖書館

은 그 發展의 程度如何를 가지고 一國의 文化水準을 測定할수 있을 만큼 文化와는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歐美各國의 例를 보면 圖書館의 利用이 國民에게 있어서 完全히 生活化되어 있으며 圖書館은 知識을 貯蓄하고 傳達할 뿐만 아니라 國民을 教育시키는 機能까지도 遂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境遇에 있어서는 圖書館活動이 아직까지도 沈滯狀態를 完全히 脫皮치 못하였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勿論 우리나라가 歷史적으로 不遇한 環境에 處해 왔었고 또한 經濟的으로도 넉넉지 못하였다는것이 重要的 理由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것은 없는가? 하는것도 反省해 봐야 할것으로 生覺합니다.

모든 다른 社會組織과 마찬가지로 圖書館도 그것이 活潑하게 움직임으로서 成長하고 또 發展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圖書館이 움직이려고 하면 國民이 이를 利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國民들로 하여금 圖書館을 利用하도록 할것인가 하는 것을 研究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爲하여 努力하여야 할 것입니다. 國民이 얼마나 많이 圖書館을 利用하는가 하는것은 圖書館이 얼마나 適切하게 國民에게 奉仕하는가 하는것과 같기 때문

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賦與된 現實을 効率的으로 活用하여 可能的 最大의 成果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것입니다.

現代社會는 어제가 옛날이라고 볼수 있을 만큼 나날이 變遷 發展되어 가는 것이며 이속에서 生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知識과 精神的인 糧食을 必要로 하는 것입니다. 歐美各國에서 生活하는 國民들이 오늘날 圖書館을 利用하는 頻도가 極히 높아서 이것을 그들이 生活化하고 있는 理由의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先驅的인 努力으로 圖書館에 對한 國民들의 認識이 높아지고 또한 圖書館의 活用이 國民들 間에 一般化 되어 진다면 이것은 結果的으로 우리의 文化를 向上시키고 또한 民度を 높여서 民主政治의 土壌을 굳건히 하는데 寄與하게 되는 것입니다.

現在 우리나라는 政治的인 安定과 經濟的인 發展이라는 時急히 解決해야 할 課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못지 않게 要望되는 것은 社會文化的인 後進性의 脫皮라고 할수 있으며 이를 爲하여서도 圖書館의 重要性은 強調되어야 할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財政的인 貧困과 社會的인 認識不足等 많은 隘路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 圖書館事業의 發展을 爲하여 거의 犧牲的인 奉仕를 다 하여 왔으며 여러분들의 이러한 努力의 結實은 이제야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지난해 圖書館法과 國會圖書館法이 制定 公布됨으로서 制度面의 基礎가 마련 되었으며 圖書館에 對한 一般

의 認識도 改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이자리에서 여러분들에 對하여 僭前의 努力을 促求하고 싶으며 앞으로 政府의 보다 積極的인 文化政策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圖書館界에도 飛躍的인 發展이 있기를 期待하는 바입니다.

오늘 特殊圖書館大會를 마련한 여러분의 意慾을 激勵하면서 國民文化的인 向上에 功獻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앞날에 보람이 있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讀書와 聯關하여 저의 平素의 所感과 여러분도 다 잘 아는 常識的인 이야기 생각나는대로 몇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人間이 動物과 다른 點이 飲食만 먹고 살수 없다” “精神의 糧食은 讀書다”하는것은 누구나 말하고 또 常識的인 이야기 일것입니다.

저도 하루에 二時間을 讀書하지 않으면 산것 같지 않고 또 글을 쓰는 날은 六千字乃至 壹萬字를 씁니다.

讀書하는데 있어서 한時間에 20~30 page를 읽을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한 page에 한時間이 걸리는수도 있습니다. 그册 內容에 따라 多讀할수 있는 것과 또 精讀을 해야 할 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圖書館에 大概 읽을 만한 內容이 充實한 册이 적습니다. 圖書館에 內容이 充實한 圖書를 많이 備置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爲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册內容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알고서 國民에게 讀書를 권장해야만 할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弱少民族의 悲哀이며

後進國民의 슬픔입니다만 요지음 읽을만한 內容이 充實한冊은 모두 外書뿐입니다. 故로 冊을 읽으려하는 外國語부터 먼저 習得해야만 할 우리의 處地입니다. 그것도 한가지만이 아니고, 英語, 獨語, 佛語, 좀더 나아가서는 希랍語까지 알아야 될것입니다.

그러나 多幸하게도 一年에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外書를 읽을수 있는 (勿論 그中에는 뜻있는 분도 있지만) 大學卒業生이 三萬餘名씩이 나온다는 事實이 마음 든든한 것입니다.

或者는 우리나라에 大學을 卒業했었자 就職 못하는 高等문憑을 많이 生産해 내고 있는 文教政策을 批難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나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치 아니 합니다.

反對로 萬一 國民 全體가 向學熱이 통히 없다고 생각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國民은 모두가 아무리 어려운 興件 下에서라도 工夫를 해 보겠다는 불같은 向學熱이 있다는것이 얼마나 多幸하고 또한 이것은 우리민족이 祖上부터 文化民族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느 民族보다도 向學熱이 强하다고 봅니다.

産業施設이란 돈만 있으면 即時 될것입니다. 그러나 教育된 人的인 資源은 一朝一夕에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西獨이나 日本만 하드라도 近者 人的인 資源不足을 느끼고 있습니다.

于先은 우리가 産業面에서 後進되고 經濟的인 困難을 當하고 있지만 언젠가 좋은 政治가 배풀어지고 安定된다면 넉넉한 人的 資源으로써 우리도 잘 살수 있는 方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大學을 卒業한 後에도 계속해서

책을 읽어야만 한다는 點을 強調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많이 冊을 읽어야 할 國會議員님들 冊을 읽지 않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저의 記念講演을 끝맺고져 하며 오늘의 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走馬加鞭의 效果를 나타낼수 있다면 그以上 多幸스러운일이 없으리고 生覺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10分間 休息)

大會經過報告: 李喆珪 (國會圖書館圖書課長)

第1回大會는 1962年7月21日~22日 2日間 中央教育研究所에서 4部會 大會를 同時 開催

第2回大會는 1963年9月11日~12日 2日間 韓國研究院과 教育研究所에서 開催

第3回大會는 1964年7月24日 圖協行政分委가 提議한 大會計劃案이 圖協定例理事會에서 承認되었고

1964年8月20日 大會準備委員會議가 圖協事務局에서 開催

1964年9月5日과 9月22日에 特殊圖書館 大會準備委員會議를 開催하여 今次大會 進行에 對하여 協議하였음.

議長 選出

司會: 지금으로부터 議長選出에 들어가겠습니다. 選出方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李鍾禧(交通公務員教育院圖書館長): 適任자가 있으면 口頭呼薦으로 選出함이 좋겠습니다.

李載喆(延世大學校圖書館學科科長): 主務委員이신 李喆珪先生을 議長으로 選出할것을 動議합니다.

司會: 李喆珪: 適任이 아니므로 辭意을

表明합니다.

李載喆 : 가장 適任임으로 再次勸談합니다.

(多數의 拍手 贊成으로서 議長으로 選出됨)

司會 : **李喆珪**는 議長으로 選出하여 주셔서 感謝합니다. 會議進行法도 잘 모르는 사람을 議長으로 選出하여 주셨으니 힘을 다하여 이 會議를 이끌어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부터 中食時間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下午 1時 30분부터 續開하겠습니다.

(中食 12:00~1:30)

議 題 發 表

議長 : 지금부터 豫定대로 議題發表를 하겠습니다.

1. 議題 : 特殊圖書館의 對外活動

發表者 : 金允泰(國防大學院圖書館)

2. 議題 : 特殊圖書館의 參考業務

發表者 : 李鍾文(韓圖協事務局長)

3. 議題 : 特殊圖書館에 있어서의 資料 整理問題

發表者 : 李丙洙(國會圖書館)

(第1日 會議 終了 午後 5時)

(第2日(9月24日 午前 9時) 會議 續開)

議長 :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議題를 發表토록 하겠습니다.

4. 議題 : 特殊圖書館運營의 問題點

發表者 : 李喆珪(國會圖書館圖書課長)

5. 議題 : 藏書構成의 特殊化問題

發表者 : 朴啓弘(韓國研究院司書長)

議長 :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여 주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討 議 和 建 議 事 項 採 擇

議長 : 지금부터 全般에 걸쳐 自由롭게 忌憚없는 意見を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範植(京畿道教育研究所圖書館) : 特殊圖書館의 相互資料 交換方案을 討議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 現在로서는 特殊한 環境에서 相互協議하여 交換하는 方法과 各己 自進하여 寄贈해주는 方法 이 두가지 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朴啓弘(韓國研究院司書長) : 現在 K A L에 特殊圖書館部會가 있으나 이 部會에서 每年 이 圖書館大會를 開催합니다.

特殊圖書館이 協同하여 活潑한 活動을 할러머는 常任委員會(假稱)를 設置하고 幹事 및 委員을 두어 企劃, 研究하여 K L A에 年次的으로 報告함을 勸議합니다. (이에 찬동 많음)

議長 : 좋은 案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意見은? (意見 없음)

議長 : 그럼 常任委員會(假稱)의 設置方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朴啓弘 : 特殊圖書館部會의 代表로 韓圖協의 常務理事가 國會圖書館의 姜周鎭館長입니다.

常務理事가 있는 圖書館에 幹事를 두고 幹事를 中心으로 4名程度의 委員을 選出토록 勸議합니다.

李鍾禧 : 再請입니다.

朱政圭(陸軍技術研究所) : 이 特殊圖書館에는 여러 分野가 있습니다. 幹事は 常務理事가 있는 圖書館에 있는분을 選出하고 나머지는 各分野別로 選出함이 좋겠습니다.

朴啓弘：動議者로서 朱先生의 意見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議長：朴先生의 動議案에 對한 贊否를 舉手로 表決하겠습니다.

(在席 64名中 贊成 38名, 反對 1名, 過半數로 통과되다)

李丙洙：이 常任委員會가 各主題別로 連絡단을 맡는것인지? 아니면 연구기관이 될것인지? 그目的을 뚜렷히 밝혀야 될줄 압니다.

議長：館種別로 當面한 問題를 調査, 研究發展시킬 母體가 될것입니다. 各分野別로 人選하는 方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相學(空軍中央圖書館)：人選에 있어서 幹事는 決定되었으니 나머지 人選을 幹事に 委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청, 삼청 있어 통과됨)

尹汝澤(國會圖書館)：이大會는 이번 第3次입니다. 每回 經費문제에 逢着하여 隘路가 있습니다. 이의 解決策으로서 會費制를 採擇함이 어찌할지?

議長：이會費의 額數등은 이다음 常任委員會에 委任토록 하고 會費制로 할것인가 아니할것인가를 이자리에서 贊否를 票決하겠습니다.

(否는 없고 可가 過半數以上으로 통과)

議長：다른 意見없으신지? (意見없음) 오랜시간 不便한 座席에서 手苦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번 大會는 이것으로 끝나치고 이자리에서 곧 中央公報館에서 提供하는 映畫 한편을 감상하시고 韓國電力株式會社의 圖書館을 見學토록 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끝)

(午前 11:30)

1964年度 協會費를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今年度團體會費를 納入하지않은 會員은 11月末日까지 期必 納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個人會費를 未納한 會員께서도 11月末까지 꼭 會費를 納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 務 局